민주신당 非盧-親盧 충돌하나

손학규, 盧와 차별화-이해찬, 孫 때리기

장기화땐 정체성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비노(非盧)-친노(親盧)진영이 정면 충돌하면서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비노-친노 진영 간의 충돌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된다면 경선 자체가 국민에게 피곤한 정체성 논쟁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3일 오전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대선에서 과거식으로 정부가 개입한다든지, 대통령이 도움을 준다든지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사실상 노 대통령의 대선불개입을 요구했다.

전날 노 대통령을 향해 "열린우리당을 문닫게 한 장본인이 누군가, 노 대통령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린 손 후보는 이번 기회에 노무현 대통령과 확실한 차별화를 통해 경선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맞서 친노 주자인 이해찬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손학규 후보의 정체성을 집중 공략했다.

그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 하고, 손 후보는 정상회담이 대선용이니 필요 없다고 한다"며 "손 후보는 아직도 한나라당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도 참평포럼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손학규 후보를 '경선에 불리하자 10년 동안 몸담아 오던 당에서 뛰쳐나온 분'으로, 정동영 후보를 '100년 정당을 약속했다가 여론 지지율을 핑계로 당을 부셔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으로 규정하며 "차별화와 배신의 정치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무슨 대의와 정의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친노-비노 진영의 충돌은 시간문제였을 뿐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예비 경선에서의 충돌은 예고편에 불과하며 본 경선에서는 본격적인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대선에 나서려는 비노 후보들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승계하려는 친노 후보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신당의 경선이 자칫 소모적인 정체성 논쟁에 파묻히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타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운동 광주·전남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신기남(왼쪽에서부터), 한명숙, 천정배, 정동영, 김두관 대선예비후보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검찰, 대통령 말듣고 수사수위 조정 안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깜(감)도 안되는 의혹이 춤춘다"는 발언이 검찰수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해 수사의 수위와 방향을 조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세무조사 무마청탁' 의혹 사건 등을 염두에 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말은 우리의 반론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범여 후보들 지역정서에 호소 지지 당부

민주신당 국민참여운동 광주·전남본부 발대식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운동 광주·전남본부는 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참여운동 광주·전남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와 당3역을 비롯하여, 정동영·한명숙·천정배·김두관·신기남 등 범여권 대선예비후보 5명과 지역 국회의원, 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당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광주본부 상임공동본부장으로 지병문 의원, 이정일 전 광주 서구청장, 정용화 전 열린우리당 광주시시당 사무처장, 전남본부 상임공동본부장으로 우윤근 의원, 허정인 전 전남도의원, 김병욱 전남도의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또 당내 예비경선 통과를 위한 치열한 유세 대결도 펼쳐졌다. 특히 민주신당의 정치적 뿌리인 광주·전남의 정서에 호소하며 경선에서의 지지를 당부했다.

먼저 연단에 오른 신기남 후보는 "제가 원칙과 소신의 길, 복지문화국가와 진보개혁 노선을 TV토론에서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게 1인 2표의 마지막표를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한명숙 후보는 "저 한명숙이 하면 룸살롱 정치, 골프치며 줄세우는 정치가 사라지고 분열로 소진된 국민저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후보는 자신이 신당 예비후보 중 유일한 광주·전남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제가 빠지면 전라도 잔칫상에서 홍어가 빠진 격인데 그래도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동영 후보는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 지원유세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지원유세를 모두 서울 명동에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지원연설이 아니라 '저 정동영이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연설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두관 후보는 "7등, 8등 달리던 김두관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3등하고 제주·울산에서 시작되는 본경선에서 뒤집으면 이명박 후보를 당당히 꺾을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학규, 유시민, 이해찬, 추미애 후보는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대 大選 범여 경선 현장

이해찬 "DJ·盧 날 적임자 보는 것 당연"

○…민주신당 이해찬 후보는 3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심중이 자신에 있다는 점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정책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해내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한, "특히, 두 분이 저에게 깊은 신뢰를 보낸다는 점에서 이심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라며 "그러나 두 분이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보 없는 경선은 도로우리당 경선"

○…민주신당 추미애 후보 캠프의 염동연〈사진〉 선거대책본부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추 후보가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경선 안을 수용했으나 컷-오프 탈락 위기를 맞고 있고 있다"며 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염 본부장은 이날 "추 후보는 민주신당 경선에 참여한 직후 여성이자 후발주자를 배려하려는 일체의 제안을 사양했다"며 "그러나 예비경선의 여론조사는 지지도보다는 인지도 조사로 흐르고 있어 바람 앞에 위태로운 촛불 한 자루를 들고 있는 심정"이라고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염 본부장은 특히, "추미애 후보가 없는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은 '도로 우리당 경선'이라는 비판에 직면, 대통합의 명분은 퇴색하고 대선승리의 희망이 멀어진다"고 추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손학규 "청년 30만명 해외 파견"

○…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3일 정책발표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와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청년 30만 명을 인턴 등으로 해외에 파견하겠다"며 '30만 청년 광개토 해외파견 계획'을 밝혔다.

손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인재양성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산하에 '글로벌 인재양성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특히, "이번 계획으로 일자리 걱정으로 꿈과 희망을 잃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인턴 등을 통해 세계를 품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외 인턴, 해외 연수 경비는 국가가 대부분을 지원해 대상자는 최소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여성 공약 80가지 제시

○…민주신당 한명숙 후보는 3일 서울에서 열린 '여풍, 한풍, 돌풍 페스티벌'에 참석, 80가지의 여성 공약을 제시하고 "여성이 유쾌하고 행복한 정책이 곧 대한민국이 행복한 정책"이라며"특히,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는 여성들이 너른 광장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학자 이효재 씨와 윤정숙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등 여성계 인사 1천2백19명은 한명숙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 이유에 대해 "한명숙 후보는 최초의 여성부 장관과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성의 진정한 성공신화"라며 "한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대한민국의 어머니이자 진정한 서민의 품성을 지닌 대통령 후보이기에 지지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신국환 "88고속도 왕복 6차선 확장"

○…민주당 신국환 대선 예비후보는 3일 "대통령이 되면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대통합, 이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뤄 국가와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날 광주를 방문,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차례 산자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써 88고속도로 왕복 6차선 확장과 자기부상열차 건설 등 광주와 대구를 잇는 영호남을 축으로 경제발전과 건설을 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祝 就 任

召命意識으로 새로이 選出된 光州鄕校 財團任員

理事長 奇翰成(世樂)
理事 李啓東
理事 白乙基
理事 高濟芳
理事 尹漳鉉
理事 程大元
理事 朴煥奎
理事 宋炫珠
理事 李起洵
理事 丁南鎬
理事 姜大旭
理事 金柄鎬
理事 申鉉德
理事 鄭幸雄
監事 金鍾灝
監事 曺台鉉
常務理事 李德在
評議員議長 高在建
評議員 李連宇
評議員 蔡奎馹
評議員 姜仲錫
評議員 安基奉
評議員 鄭弘林
評議員 廉正煥
評議員 玄永錄
評議員 鄭權
評議員 崔鍾鶴
評議員 趙光龔
評議員 魏啓厚
評議員 辛炳權
評議員 李京輝
評議員 申夏燮

顧問 辯護士 奇世龍、奇世運

電話 : (062)233-8500

財團法人 光州廣域市鄕校財團

光州廣域市 南區 龜洞 22-3

電話 : 062-651-2988 FAX : 062-672-7718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법인 M&A(분할 합병)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 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062) 226-6300
FAX:(062) 943-2244

고시원 매매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 입니다.
◉5층건물 매매가7억5천 융자(3억5천 포함)
◉6층건물 매매가7억5천 융자(3억5천 포함)
◉6층건물 매매가8억5천 융자(4억 포함)
◉7층건물 매매가9억5천 융자(3억9천 포함)
◉4층-6층건물 매매가20억 융자(6억7천 포함)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요.

H.P:011-604-5239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동부경찰서뒤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추석에 가족친지들이 모인자리에 마술을 연출해 보세요. 즐거운 추석이 됩니다.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